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I : 뚝

Tracing Lanna Kingdom I : Tung(Flag)

배수경*

Soo Kyung BAE

북부 태국은 ‘란나’라는 명칭으로 중부 태국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란나는 팔리어에서 온 말로서 백만 개를 의미하는 ‘란’과 논을 의미하는 ‘나’의 복합어이다. 따라서 란나는 백만 개의 논을 의미한다. 즉 이 단어는 라오스, 루엡프라방의 과거 이름인 백만 마리의 코끼리를 의미하는 ‘란창(란쌍)’과 쌍을 이루는 명칭이 된다.

1967년도부터 란나라는 단어가 공식화 되었다고 하는데 1980년 한스박사가 왓치양짜 사원의 비문연구에서 란나와 란창의 상관관계를 증명해 낸 이후 공식적으로 백만 개의 논을 의미하는 단어인 란나가 되었으며 1987년도 역사학자인 뿌라셋 나 나컨 교수에 의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란나’로 확실하게 정의되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thai@iseas.kr.



<그림 1> 란나지역 출처:<http://en.wikipedia.org>

<그림1>에서 보듯 ‘란나 왕국’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민족은 몬(Mon)족들이었다. 이들이 태국 땅에 구축한 정치적 연합체를 ‘드와라와디(Dvaravati)’라고 부른다. 약 11세기경부터 크메르족의 지배 확대 및 타이족의 남진으로 태국 땅에서의 이들의 세력은 점차 사라져 갔다. 란나 왕국을 건설한 왕은 망라이(혹은 맹라이, 1239-1317)왕으로써 1287년 수코타이 왕국의 3대왕인 람캄행대왕(1277-1298), 파야오 왕국의 응암 므영왕과 동맹을 맺고 하리퐁차이(현재의 람퐁지역)의 북쪽인 땡강변에 새로운 도읍지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치앙마이’라고 불렀다. 즉,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다. 이 시점 이후로 치앙마이는 란나 왕국의 수도로써, 란나 왕국은 태국 북부를 통합한 왕국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이 지역의 민족은 북으로는 치앙룽, 씽썽판나(西雙版納), 쟈주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을 포함한 한 때 태국 땅 전역을 지배했던 민족이다. 현존하는 란나 문화유산 중 초기 문화유산의 상당수가 바로 이들이 직접 남겨 놓거나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초기의 란나는 민족의 영향 이외에도 이웃국가였던 수코타이와 미얀마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란나문화는 더욱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오늘날 북부 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란나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 요소 중에서 그 첫 번째로 ‘똥’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림 2> 사원의 똥
출처: www.chiangmai-thailand.net

똥은 ‘기’ 혹은 ‘깃발’에 해당하는 란나어이다. 태국어로는 ‘통’이다. 똥은 란나인의 종교문화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가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란나인의 각종 행사와 의식 속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

똥이 란나인의 삶속에 본격적으로 들어 온 시기는 1296년경으로 본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신앙과 불교가 혼재되어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전통의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용처나 재질에 따라 약간씩 그 역할을 달리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똥은 대표적인 란나문화의 한 형태로서 그 역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란나문화의 상징성을 가지는 것으로 집단이나 지방을 구별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똥의 색과 무늬에 그 집단이나 지방의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마을단위가 될 수도 있고, 직업단위가 될 수도 있으며 성별이나 계급의 구분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2. 종교 의식에서 빠져서 안되는 주요 도구로서 특히 불교의식에 서는 꼭 필요한 것이 된다. 이는 특별히 내세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그림 3> 여러가지 색의 뚝1
출처: Khun NIKOM



<그림 4> 여러가지 색의 뚝2
출처: Kamin Rider

의미로 뚝의 끝을 잡고 극락에 갈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3. 신께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되는 제구의 하나로서 인드라신은 초록색의 뚝을 사용하는 등 각각의 신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무늬 혹은 색을 다르게 하여 나타낸다.

뚝은 천, 종이, 나무, 금속 등의 재질로 만들어 지며 통상적으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의 것이 일반적이다. 행사의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크기나 길이가 달라지는데 주로 30센티에서 6미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진다.

뚝은 크게 결혼식과 같은 길사와 장례식과 같은 흥사에 쓰이는 용도로 나누어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다.

1. 길사 : 결혼식, 불교의식, 축하 및 축제 등에는 뚝차이(Tung Chai)라고 불리는 뚝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뚝이 있어서 각각의 행사나 축제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뚝차이(Tung Chai), 뚝야이(Tung Yai), 뚝끄라당(Tung Kradang), 뚝싸우와(Tung Sauwa), 뚝파야여(Tung Phayayeo)

혹은 동싸이무 (Tung Saimoo), 동쌌쌌라씨(Tung Sibseongrasi), 동쩌디싸이(Tung Chedisai), 동쌌리얌(Tung Samriam) 혹은 동까틴 (Tung Kathin), 동레이뻬(Tung Reoipaet)등 수많은 형태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에 따라 크기와 색, 모양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동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똥차이’인데 이 똥차이는 흰색이 일반적이지만 노란색과 초록색도 간혹 사용한다. 똥차이의 무늬는 꽃, 동물, 신, 사원, 사람, 신화속의 등장인물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의 무늬는 똥 하나에 하나씩이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여 같은 무늬가 반복되기도 하고 다른 무늬를 섞기도 한다. 이때 똥차이는 보통 7개의 조각을 서로 잇대어 만드는데, 한 똥에 7개 조각이 들어 가며 그 조각의 길이는 9인치 정도이다. 그리고 각 조각들이 접히거나 말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조각의 이음면에 작은 나뭇가지로 팽팽하게 고정시켜 서로 뒤틀리지 않도록 만든다. 똥차이의 꼭대기는 삼각형의 걸췌 모양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그 장식이 조금씩 달라 질 수도 있다.

똥차이’는 태국어로 승리의 깃발(통차이, Tong Chai)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는 승리, 성공, 기쁨, 영예 등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제나 결혼식과 같은 행렬의 선봉에 참가하거나 행사장 주변의 장식, 혹은 행사장 통로 양 가장자리에 꽂아 행사장의 분위기



<그림 5>

각종 똥차이

출처: <http://www.chomtong.com>



<그림 6> 동파야여
출처: Jenaksaraphijarn



<그림 7> 동째디싸이1
출처: www.cm108.com



<그림 8> 동째디싸이2
출처: 태국사이버대학교

를 한층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축원의 의미까지 더하고 있다.

2. 흥사 : 장례식이 대표적인데 동댕(Tung Daeng)과 동쌈항(Tung Samhang)을 사용한다. 동댕은 횡사를 당하거나 객사를 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동댕을 가져다 고인이 사망한 지점에 꽂고 고인의 천도를 빌면 고인의 넋이 동댕의 꼬리를 잡고 극락으로 올라간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동쌈항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옮겨 갈 때 꼭 필요한 깃발이 된다.



<그림 9> 동삼향
출처: www.chiangmai-thailand.net



<그림10> 동끄라당
출처: Jenaksaraphijarn



<그림 10> 동댕
출처: 태국사이버대학교제공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란나지역의 동은 그 행사나 의식이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던 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행사장의 장식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종교적인 축원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개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구성원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상징물의 역할을 해 냄으로써 집단적 일체감과 정체성에 도움을 주
었던 것으로 보인다.